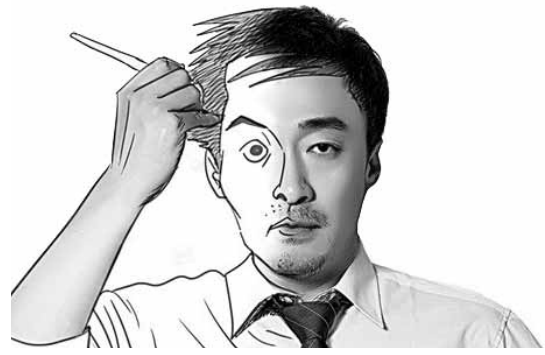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직장인만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tvN ‘미생’ 오상식 과장 역 이성민

인기 웹툰을 드라마로 옮긴 tvN ‘미생’의 주인공은 사회 초년병 장그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장그래 상사인 오상식 과장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장그래뿐 아니라 인턴 안영이·장그래, 김 대리, 마 부장, 정 과장, 최 전무 등 모든 인물이 오과장과 맺어져 있다.

동심원의 중심에 버티고 선 오과장 역의 배우 이성민을 5일 만났다. 이날 오후 드라마 세트장이 설치된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주연배우 기자회견담회에 참석한 이성민은 “직장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해서 그 배역이 특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생”이 직장인만의 이야기였다면 여러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으리라 생각할만하다. 드라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즉 우리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에요.”

이성민은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연기하는 직업군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제가 연기로 보여주는 것은 사람 관계이지 직장인을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그럼에도 매일 ‘지옥철’을 뚫고 출근해 사무실에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직장인은 이성민이 분한 오과장의 모습에 “저건 바로 내 이야기면서 내 동료의 이야기”라고 공감한다.

조직의 불합리한 생리에 분노하다가도 목구멍이 포도청인 지라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없는 현실에 쓸쓸함을 느끼고, 장그래를 구박하다가도 “우리 아직 다 미생이야”라고 말하는 오과장의 모습에 사람들은 연대 의식을 느낀다.

이성민은 “저는 컴퓨터 타자도 잘 못 치고 출연 준비를 별로 못 했다”고 했지만 제작진과 다른 배우들은 그의 완벽함을 거듭 칭찬했다.

김원석 PD는 “이성민 씨는 대기업 중역인 매제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작은 디테일을 잡아낸다”면서 “가령 바이어 미팅을 앞두고 껌을 씹는 식의 아주 작은 디테일을 본인이나 준비해서 온다”고 설명했다.

이성민은 현장에서 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는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이성민에게 극 중 어떤 모습에 가장 공감했는지를 물었다.

“오과장의 프로젝트 진행을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상사의 이익에 따라 보류했다가 다시 추진했다가 다른 팀에 넘어갔다 하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성민은 “조직 내에서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나다고 느꼈다”면서 “자문하는 쪽에 몰려보니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은 비밀비재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도 세트장으로 매일 출근하는 셈”이라는 이성민은 직장 생활의 외피는 확실히 익힌 모습이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죠. 가끔 쉬는 날에는 너무 행복해 해요. 그리고 쉬고 난 다음날 촬영장으로 출근할 때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 제가 술을 잘 못 하지만 촬영이 일찍 끝나면 정말 맥주 한잔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어제는 김 대리하고 그레가 먼저 퇴근해서 굉장히 짜났어요.”

극 중에서 장그래를 구박하고 출중한 역량의 다른 팀 인턴 안영이(강소라 분)를 예배하는 이성민에게 실제 오과장이라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가벼운 질문을 던졌더니 “당연히 안영이를 뽑죠. 하하하”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이미 연기 하나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된 이성민은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정말 영광스럽지만 인기엔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 노력하려고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었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09:40 무모, 14:00 시계마을 티키투크, and 17:30 로보카 폴리.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00:0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01:40 수능특강 light, and 02:30 로보카 폴리(재).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and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6일(음 윤9월 14일) (수)

36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 되는 성국이나. 48년생 경쟁이 따른다. 60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 72년생 더 이상 시간이 없다. 84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행운의 숫자 : 53, 44

42년생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 54년생 순간의 선택이 전체적인 국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66년생 잘 정리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생소하다고 해서 굳이 경계할 이유가 자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0, 31

천정명, ‘하트 투 하트’ 출연 최강희와 호흡



‘미생’ 후속으로 내년 1월 2일 첫 방영

최근 흥행한 OCN 드라마 ‘리셋’에서 검사로 등장했던 배우 천정명(34)이 이번에는 의사로 돌아온다. 4일 소속사인 레드라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천정명은 tvN 새 드라마 ‘하트 투 하트’에서 정신과 의사인 고이석 역을 맡았다. 고이석은 화려한 언변과 출중한 외모, 실력까지 겸비했지만

형의 죽음에 따른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인물이다. 그는 대인 기피증을 앓는 여자 차홍도(최강희 분)를 만나서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사랑에 빠진다. 이번 드라마는 지난 5월 MBC를 퇴사한 드라마 ‘커피프린스’의 이윤정 PD가 프리랜서 선언 후 tvN에서 선보이는 첫 작품이다. ‘하트 투 하트’는 ‘미생’ 후속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매주 금, 토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한영애 “마침표 닳은 심포 찍고 가려 해요”



15년만에 6집 발표... 다양한 장르 수록

‘소리의 마녀’로 불리는 가수 한영애가 15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고 페이퍼레코드스가 4일 밝혔다. 이날 출시될 새 앨범은 지난 1999년 5집 ‘난,다’ 이후 발표하는 6집이다. 앨범에는 김도현과 강산에, 유엔미블루의 방준석 등 다양한 음악인들과 작업한 컨트리풍의 레게, 블루스 느낌의 록 발라드, 리드앤블루스,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수록됐다. 그중 한영애가 작사한 ‘회귀’는 아날로그 전자 악기를 사용했으며, ‘너의 편’은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브리티시 록 사운드가 어우러졌고, ‘사랑은 그래, 바다처럼’은 사랑과 희망, 아름다움에 관한 명성이 담겼다. 한영애는 페이퍼레코드를 통해 “이제 저의 음악 인생에서 마침표를 닳은 심포를 찍고 가려요”라며 “웬일인지 요즘에는 육십이 더 생긴다. 노래가 날아가 즐거워진다. 나의 숨 안에 대중도 가득 들어와 있다. 무대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자꾸 커져간다. ‘살’이 아닌 ‘뺨’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온몸의 ‘숨’으로 라며 의미를 나타냈다.

1976년 이정선, 이주호, 김영미와 함께 혼성그룹 해바라기 1집으로 데뷔한 한영애는 1986년 솔로 1집 ‘여울목’을 냈고 신촌 블루스 객원 보컬로도 참여했다. 그간 포크와 블루스, 록과 테크노, 트로트까지 폭넓은 음악 영역을 넘나들었다. 통기타 시절엔 ‘한국의 멜리니 사르카’, 록을 선보일 땐 ‘한국의 제니스 조플린’으로도 불렸다. /연합뉴스